

빌 비올라: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오늘

November, 2017 | 이정훈 독일 통신원

page 1 of 6

WORLD ART | GERMANY

빌 비올라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오늘

《빌 비올라-설치 작업들

(Bill Viola-Installationen)》

6.2-9.24 | 함부르크 다이히 토어 할렌

(Deichtorhallen Hamburg)

글 이정훈 독일 통신원

이미지 제공 함부르크 다이히 토어 할렌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Bill Viola, b.1951)의 개인전 《빌 비올라-설치 작업들(Bill Viola-Installationen)》이 함부르크 하펜 시티(Hafen City) 근처에 있는 다이히 토어 할렌 함부르크(Deichtorhallen Hamburg)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 그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동·서양 종교를 아우르며 비디오라는 현대적인 언어를 통해 그 숭고함을 표현해온 작가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초입에서 관객을 압도하는 10미터 길이의 대형 스크린 작업부터 날개의 방으로 분리된 암실 속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인간의 생(生)과 사(死)의 서사를 담은 영상까지 약 15점의 작업이 선보여졌다.

《빌 비올라-설치 작업들(Bill Viola-Installationen)》 전시 전경 ©Felix Krebs/Deichtorhallen Hamburg



〈빌 비올라-설치 작업들(Bill Viola - Installationen)〉 전시 전경
©Felix Krebs/Deichtorhallen Hamburg

작업에 드러난 새로운 시간성과 공간성

밝은 전시장 밖에서 어둠이 짙게 깔린 전시실로 들어가 모퉁이를 돌아서면 관객을 압도하는 대형 스크린 작업이 단번에 눈에 들어온다. 커다란 크기의 스크린 뒤로는 다이히 토어 할렌 함부르크의 중앙 건물의 모습이 합쳐져서 시각적으로 마치 하나의 성당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는 전시 소개문에서 “약 10미터 길이에 달하는 기념비적인 대형 작업은 다이히 토어 할렌 함부르크의 건축물과 공간을 21세기 대성당으로 변모시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웅장한 크기로 관객을 압도하는 스크린에서는 〈트리스탄의 승천(폭포 아래 계곡의 소리)〉(Tristan's Ascension)(The sound of a mountain under a waterfall)〉(2005)과 〈불의 여인(Fire Woman)〉(2005) 두 작업이 연달아 보인다. 위 두 작업은 미국의 연극 연출가 피터 셀라스(Peter Sellars)가 제작한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Tristan und Isolde)〉에서 기인한 작가의 시리즈 작업 중 일부이다. 〈트리스탄의 승천(폭포 아래 계곡의 소리)〉 작업에서는 어둠과 고요함으로 가득 찬 미지의 공간에 흰옷을 걸친 한 남성이 석관 위에 누워있다. 남자를 둘러싼 공간의 이곳저곳에서 미세하게 거품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미세했지만,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곧 하나의 물줄기가 된다. 영상 속 시간의 흐름과 비례해서 물줄기는 이곳저곳에서 솟구치고, 이내 폭포가 되어 고요를 집어삼킨 계곡의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와 동시에 정체 모를 한 남성의 몸 역시 공중으로 부양하며 어딘지 모를 시야 밖으로 사라진다. 이내 다시금 고요함이 찾아들고, 영상은 마무리 된다. 작가는 본인 작업의 상징이기도 한 ‘슬로우 모션(Slow Motion)’, ‘리버스 모션(Reverse Motion)’ 촬영기법과 인위적인 편집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성을 창조해낸다. 그가 작업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시간

WORLD ART | GERMANY



빌 비올라 《캐서린의 방(Catherine's Room)》 설치 전경
© Felix Krebs/Deichtorhallen Hamburg

의 흐름과 개념은 선형적이기도, 비선형적이기도 하다. 심지어 때로는 역순이다. 앞서 이야기한 작업에서는 삶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선형적인 시간성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죽음 속에 갇혀있던 한 남성을 보란 듯이 죽음으로부터 이승의 삶으로 끄집어 올렸다. 또한 이러한 역순의 시간성이 삶과 죽음이라는 명사와 맞물리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기도 한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영적 경험을 선사하는데, 실제로 작가 역시 작업을 통해 죽음 이후의 부활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이어서 상영되는 〈불의 여인〉에서는 제목에서 '여인'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다르게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검은 형상이 사나운 불길을 뒤로한 채로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관객의 방향으로 걸어오는 그림자와 같은 형상은 갑자기 팔을 벌리고 보는 이를 덮치듯 쓰러진다. 형상이 물 표면으로 떨어지듯이

쓰러지면서 물장구가 사방으로 튀는데, 그제야 관객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앞바닥에 물이 존재했었고, 불과 물 사이에는 일종의 대지와 같은 장소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검은 형상과의 마찰로 일어난 거대한 물의 파동이 잠잠해짐과 동시에 앞서 파악했던 공간은 아래로는 물에 의해서, 위로는 불에 의해서 점차 사라진다. 경계가 사라지면서 불과 물의 두 원소는 서로 충돌한다. 머지않아 물 표면의 물결로 인해서 불기둥이 녹아내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화면은 핏빛에 가까운 불의 색이 점차 파란색으로, 파란색에서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작가는 이를 두고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환에 대한 영적 체험을 상징하는 은유라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작업을 살펴보면 〈불의 여인〉의 불은 우리네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을 상징하고, 물은 고요하고 경건하게 맞이하



빌 비올라, 《캐서린의 방(Catherine's Room)》
컬러 비디오, 5중 평면 패널 LCD, 2001
퍼포머: Weba Garretson
©Kira Perov, courtesy of Bill Viola Studio

는 인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중간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던 형상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경계는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한다. 앞선 <트리스탄의 승천(폭포 아래 계곡의 소리)>은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시간성을 표현한다.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각각의 영토를 형성하던 불과 물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점은,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낸다. 불로 은유된 삶이 어둡고 차가운 죽음에 희석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일렁이는 물결은 죽음에 뒤덮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꿈틀거리는 삶의 격동을 표현한다. 일렁임이 잦아들면서 맞이하는 고요함과 화면을 전부 뒤덮어버린 검푸른 색의 향연은 완전히 맞이한 죽음의 상태로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無)의 장소로 우리를 이끈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생의 숭고함에 대해서 다시금 고찰하게 된다. 또한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동·서양의 종교들이 끊임없이 던져오던 그리고 오늘날까지 던지고 있는 질문처럼 죽음 그 이후의 시간과 장소는 어떠한지, 그곳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낸다.

생(生)과 사(死)의 서사와 그 숭고함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에 의해 생겨나

고 존재해온 종교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저변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다양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만큼 본 전시는 삶과 죽음이 라는 대명사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파편들이 인간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한다는 주제의식을 갖고있다. 작가는 삶과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조각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본질적 성격과 순환에 집중한다. 이번 전시에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던 <캐서린의 방(Catherine's Room)>(2001)은 삶의 순환에 관한 작가의 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업이다. 작업의 외관적 형식을 안드레아 디 바르톨로(Andreas di Bartolo)의 제단화에서 보이는 수평 배열 형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관객은 일종의 종교화를 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일렬 수평으로 설치된 총 다섯 개의 납작한 패널 스크린에는 독방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영상을 구성하는 공통된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인데, 영상 속 여인이 행하는 움직임은 각각의 영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서사적 흐름을 구성한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며 새로이 밝은 날을 맞이하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오후에는 옷을 수선하며, 석양 아래에서는 작가로서 글 작업에 몰두하고,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에는 방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밝히며, 세상 만물이 고요한 한 밤 중이 돼서야 그녀는 침대에 몸을 누우며 깊은 잠자리에 든다. 작가는 누군지 모를 한

WORLD ART | GERMANY

여인의 평범한 하루의 서사를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범인(凡人)의 인생으로 치환한다. 특별하지 않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과 사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일상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승고함을 은은하게 경험할 수 있다. 반면,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암실에서 상영되고 있는 <낭트 삼면화(Nantes Triptych)>(1992)는 보다 직접 삶과 죽음의 서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선보인다. 삼면화의 전통적 특징을 비디오로 옮겨온 작가는 세 개의 채널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과 죽음을 눈앞에 둔 작가 본인 어머니의 모습을 대척점으로 두고, 그 사이에서 부유하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앞선 작업에서 관객이 승고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암실이라는 연극적 장치로부터 발현되는 일종의 공포감과 더불어 먼 기억이지만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앞으로의 운명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혹은 삶과 죽음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암실 속에서의 대화

<낭트 삼면화>를 마주하며 도달하게 되는 감상의 지점은 영상 작업 자체가 가지는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암실이라는 공간은 관객을 작업에 더욱 몰

두하도록 유도하고, 작업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작가의 의도 아래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연극적 장치로서, 관객들로 하여금 작가가 다루는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고민과 더불어 종교의 영험함에 접근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작업과 관객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조출한 무대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관객의 동공을 고정시킨다. 이로써 관객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동감 있는 서사를 경험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라는 막을 뛰어넘어 작업과의 교감에 이르게 된다. 전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전달자(The Messenger)>(1996) 역시 어두움이 짙게 내린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푸른빛이 감도는 깊은 물속에 발가벗은 한 남성이 있다. 물결의 일렁임으로 그의 얼굴과 몸은 다소 희미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꼭 감은 두 눈은 마치 죽은 이의 모습처럼 보인다. 잠시 뒤 그는 물속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듯 관객을 향해 서서히 다가온다. 마침내 물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얼굴과 몸 위로 붉은 빛이 비치고,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다시금 검푸른 물속으로 멀어진다. 작가는 이러한 서술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출생과 삶 그리고 죽음이라는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본질에 관한 고민을 담은 이 작업은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



빌 비올라, <낭트 삼면화(Nantes Triptych)>, 비디오/사운드 설치, 1992 ©Kira Perov, courtesy of Bill Viola Studio

하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서 관객을 맞이하며 그들의 시각이 오로지 작업에만 고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남성이 물의 표면 위로 떠오르며 호흡을 내뿜는 시퀀스와 맞물리는 사운드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세차게 울리며, 그의 호흡이 상징하는 삶의 순간을 한층 격동적으로 연출한다. 외부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암실은 작업 내부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변형이나 전복 없이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한다. 이는 현상론적 논쟁보다 본질과 근본에 관해서 심미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또한 암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견되는 극적 효과가 영상 작업과 맞물리면서 빌 비올라의 작업은 연극으로의 확장과 비디오의 새로운 기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회화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비디오

빌 비올라의 작업은 회화라는 전통적인 장르와도 맞물린다. 실제로 그의 상당수 작업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화 도상과 그 양식을 바탕으로 한다. 앞서 언급했던 〈낭트 삼면화〉나 〈캐서린의 방〉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이전 시대에 성행했던 제단화와 삼면화의 양식을 가져와 하나의 서술적 구조로서 기능하게 한다. 또한 〈인사(The Greeting)〉(1995)에서는 16세기 초 폰토로모(Pontoromo)의 회화 작업 〈방문(Visitation)〉(1528-1529)의 도상을 가져와 비디오라는 현대적 매체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작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Maria)와 엘리자베스(Elisabeth)의 조우의 순간을 담은 폰토로모의 회화 작업에 갇혀있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시간성을 파괴한다. 이후 촬영 기법, 편집, 연출 방식 등의 작가 주도적 개입을 통해 주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층위의 시간성을 영상 속 분할된 모든 이미지에 부여한다. 이렇게 부여된 다층적이고 가변적인 시간성은 회화 속에서 평면적 재현에 그치던 인물과 배경에 생기를 불어넣고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면서 입체적 성격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이는 비디오가 회화의 본질이자 한계로 거론됐던 평면성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지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극복한 형상인데, 이러한 이유로 빌 비올라의 비디오 작업은 움직이는 회화 혹은 입체적인 회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작가의 영상 작업은 회화라는 전통적이고 물질적 성격이 강한 장르를 비디오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체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빌 비올라의 전시는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내용의 작업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고, 전시가 기획된 배경이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



빌 비올라, 〈전달자(The Messenger)〉, 비디오/사운드 설치, 퍼포마: Chad Walker, 1996
©Kira Perov, courtesy of Bill Viola Studio

은 점이 인상적이다. 전시 브로슈어를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의 개인전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배경 아래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빌 비올라의 작업은 종교적인 색채와 주제를 다뤘다고 오해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다루는 작업이 주를 이뤘다. 더욱이 어둠이 깔린 전시 공간은 입구와 출구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이 점 역시 탄생과 소멸의 순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에 부응하는 공간 활용이다. 이러한 전시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관객이 '종교 또한 결국에는 인간이 태초부터 만들어 낸 일종의 경험적 현상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에서 있는 나 자신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암흑의 전시장을 빠져나오면 생(生)과 사(死)의 본질에 관한 의구심, 그리고 그 경계에서 고뇌에 휩싸인 인간의 모습에 투영된 우리들의 오늘이 아득한 찬상으로 남는다. ㉠